

-91회 동아시아고대학회 공동학술대회-

**《정음학》 창간 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 정음의 19가지 위대함**

주최 : 정음시

주관 : 정음학연구회/동아시아고대학회/대순사상학술원  
/전북대 농악풍물굿연구소

일시 : 2023년 7월 7일(금요일)~8일(토요일)

장소 : 정음시립도서관 회의실

## 《정음학》 창간 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모심의 글

김익두(정음학연구회 회장, 민족문화연구소장, 전 전북대 교수)

정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땅’입니다. 우리 ‘정음학연구회’는 이 정음의 ‘위대함’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가을에 창립되었고, 다음해인 2014년 가을에 본 학회의 창간호 《정음학》 1호가 나왔습니다.

저희 ‘정음학연구회’는 올해로 저희 학회의 한술지 《정음학》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음시 추최 · 정음학연구회 주관으로 창간 1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학회에서는 ‘정음의 위대함 18가지’라는 주제 아래 ‘정음문화’의 18가지 위대함을 학술적으로 다루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란 그 문화를 이루어온 주체들의 ‘삶의 총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음의 문화’는 정음 사람들의 삶의 총체입니다. 정음 사람들의 삶의 총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음 사람들의 삶을 이루는 문화의 모든 영역들을 두루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음문화’를 이룩하고 있는 정음문화의 여러 다양한 면모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정음문화의 ‘위대함’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정음문화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인문지리를 다루기로 하여, 정음 자연지리의 생태 성격과 특성들(정음생태연구소장 이용찬 소장 발표), 그리고 정음 인문지리 풍수의 성격과 특성(우석대 김두규 교수 발표)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삶과 문화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또한 ‘물’입니다. 우리 ‘정음’은 그 지명에서부터 ‘물’을 강조하고, 물의 생명성 토대 위에서 지명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한 때 ‘600만 교도’를 형성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상해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단체 자금의 엄청난 부분을 담당하였던 정음 보천교의 교기(敎旗)도 이 생명의 물을 상징하는 ‘井[우물정자]’자였습니다. 이 정음 물의 한 문화적 실체로서, 우리는 이번에 ‘정음술’(정음발효연구소 한영석 소장 발표)을 다루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정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자발적 향약(향약(향약) 참조 고현동 향약)을 실시한 곳이고, 불우현(不憂軒) 정극인은 그 향약의 중심에 ‘향음주례(鄉飲酒禮)’를 두어 해마다 마을 공동체 문화를 이 ‘술’을 중심으로 한 풍류문화로 이끌어 나아가면서, 신라 말기에 정음 태산태수로 부임하였던 고운 최치원의 풍류도(風流道) 문화의 계승 · 발전을 추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정음문화의 중심에는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우리 토착 ‘풍류문화’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경희대 안영훈 교수 발표). 그것을 남북국시대에 크게 강조한 사람은 당대에 정음 태산태수로 왔던 고운 최치원(고군산열도 선유도 사람이라 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칠보에 살았던 불우현 정극인이 계승하여 태인 고현향약(古縣鄉約)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이후에는 정음 향제 줄풍류(전북대 이용찬 박사 발표), 정음농악(경기대 김현선 교수 발표), 정음민요(제주대 조영배 교수 발표) 등으로 부단히 발전 · 전개되어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정음 ‘풍류문화’의 전개는 주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어 인근의 고창 · 부안 · 순창 · 담양 · 광주 · 나주 등지로 전파되어 나아가가, 호남 풍류문화의

한 중심부를 이룩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넷째, 정음은 또한 우리 고대문화의 한 중심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마한 관련 기록, 백제시대 중방 관련 기록, 여러 백제 돌방무덤 등의 고고학적 유물 등이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도 초점을 맞추어 ‘한국 고대문화의 한 중심 고부 중방과 돌방무덤’(김주성 교수 발표)을 주요 주제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음은 또한 우리 공동체문화의 근본을 매우 충실하게 다져온 중요한 고장이며, 이러한 전통은 정음의 향약문화, 마을굿/당산제 문화 등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논의로서, 우리는 이번에 ‘정음 공동체문화의 근원으로서의 마을굿—원백암, 오류리, 내동, 정량리 등을 중심으로’(전북대 허정주 박사 발표), ‘한국 공동체 규약의 선봉으로서의 정음향약—고현향약, 태인향약을 중심으로’(공주대 이해준 교수 발표)라는 두 가지 학술발표 주제로 다루기로 합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정음은 우리나라 사상사 특히 명목론이 아닌 실질론적 사상사, 서민-민중사상사의 가장 강력한 중심지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고도 폭넓게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번에 ‘정음 전후, 최치원의 생각 변화와 세상의 변화’(경희대 안영훈 교수 발표), ‘선교 융합 사상의 선구자 경한 백운화상의 사상’(성균관대 조영미 교수 발표), ‘한국의 융합적 실질론 철학사상의 중심지 정음—일재 이항의 사상과 그 전개’(한양대 손홍철 교수 발표), ‘한국 도선사상의 중심지 정음—청하 권극종을 중심으로’(군산대 김성환 교수 발표), ‘한국 근현대 민중사상의 중심 정음—실질론 철학사상 계승과 재창조로서의 증산 강일순 사상’(대전대 고남식 교수 발표) 등을 중요한 발표로 배정했습니다.

최치원은 해외 유학과 해외 관직 생활을 통해 우리 민족사상[풍류도]의 위대함을 몸소 체득한 사람이고,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인쇄물로 유명한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작자이기도 한 경한景閑 백운화상은 우리 정음 고부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주제적 융합사상사의 한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인물입니다. 일재—齋 이항은 정음 태인에 살았던 호남 유학의 비조鼻祖로서, 퇴계 이황 계열의 플라톤식 명목론을 거부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질론적 유학사상을 추구한 우리나라 최대의 학자로, 이후 호남사상사와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청하靑霞 권극종은 우리나라 도선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고부 출신 사상가로서, 주역周易에 의거하여 도선사상을 정초하고, 선불교와 도선사상이 하나로 귀일한다는 선불동원론仙佛同源論을 제시한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음사상사의 맨 마지막 자리에, 바로 동학사상의 서양—대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직전의 광화光華 김치인의 중학지향적 남학南學 사상과 일부—夫 김항의 정역正易 후천개벽 사상을 융합하여 ‘해원—상생—대동’의 중학사상中學思想을 창도하여, 한국 민중사상의 최상위 지평에서 있는 정음 이평면 손바래기 출신 증산龜山 강일순이 있습니다.

일곱째, 정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혁명사’의 최상에 취치한 고장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정음은 단재丹齋 신채호가 ‘조선역사 이천년 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한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루어보기 위해, ‘세계 5대혁명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현주소와 그 미래지향적 전개 방향’(전북대 박대길 박사 발표)이란 제하의 발표를 준비하고, 정음 사람들이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를 되묻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정음은, 이런저런 연유들로 인하여, 특히 ‘풍류’의 고장임으로 해서, 고래로부터 탁월한 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정음은 백제 유일의 민요 ‘정음사井邑詞’가 남아 있는 고장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가사문학 작품 불우현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을 낳은 고장이기도 하고, 호남 향제 줄풍류의 근원지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근현대 농악 부흥의 일번지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조선 후기 3대 서예가 창암蒼巖 이삼만이 태어난 고장이기도 하고, 갑오동학농민혁명노래의 근원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다루어보기 위해, ‘호남 풍류문화의 근원지 정음—향제 줄풍류를 중심으

로'(전북대 이용찬 박사과정 발표), '풍류문화의 근현대적 부활과 재창조로서의 정읍농악'(경기대 김현선 교수 발표), '한국 민족-민중 서도의 길을 창도한 창암 이삼만의 생애와 예술세계'(전북대 김익두 교수 발표), '한국민요의 한 중심지 정읍—「정읍사」와 동학혁명노래를 중심으로'(제주대 조영배 교수 발표), '정읍 건축의 중심적 전개와 칠보 고현내 마을 복원 방향—정읍 풍수와 건축, 김동수 가옥, 보천교 십일전, 고현내 원촌 마을 복원을 중심으로'(전북대 남해경 교수) 등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홉째, 정읍은 또한 민족산업의 한 중심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그 선두에 정읍 보천교 직물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보천교는 이 민족산업운동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운동 자금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였음이 최근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읍의 '생명산업' 문제를 역사적-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우리는 '정읍의 민족산업과 기업—보천교의 근대 기업 활동과 그 이후'(전남대 안후상 박사 발표), '정읍 생명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전북대 김대혁 교수 발표) 등의 학술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학술대회를 위해 전국의 각 학문 분야별 최고의 학자·교수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로 하여, 주최기관 대표로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분들과 본 학술대회를 위해 큰 부담을 저주시는 정읍시청, 본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해주신 동아시아고대학회, 대진대학교 대순사상연구원, 그리고 본 학술대회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7월 7일  
정읍학연구회장  
김익두 모심.

## \* 학술대회 진행 내용

### I. 제1부 개회식.....사회: 이용찬(정음학연구회 총무)

1. 개회사.....김익두(정음학연구회장)
2. 환영사 1.....이학수(정음시장)
3. 환영사 2.....배규한(대순학술원 원장)
4. 내빈소개.....제1부 사회자
5. 학회연혁 소개.....상동
6. 축사 1.....양오봉(전북대학교 총장)
7. 축사 2.....윤준병(정음시 국회의원)
8. 축사 3.....고경윤(정음시의회의회장)

### II. 제2부 학술대회.....사회: 김익두(정음학연구회장)

1. \* 정음의 자연 생태  
 한국 생태계의 보고 정음—내장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발표—이용환(전북대 박사, 정음생태연구소장)  
 토론—유동진(전북대 교수)
2. \* 정음의 인문지리 풍수  
 음양오행이 조화로운 땅 정음      발표—김두규(우석대 교수)  
 토론—송원섭(전북대 교수)
3. \* 정음의 물  
 샘고을 정음의 물과 술—죽령고, 막걸리, 새술을 중심으로  
 발표—한영석(정음발효연구소장)  
 토론—유화수(전 호원대 교수)
4. \* 정음의 풍류  
 호남 풍류문화의 근원지 정음—최치원, 정극인, 향제 줄풍류를 중심으로  
 발표—이용찬(전북대 박사과정)

토론-권민정(전북대 박사)

5. \* 정음의 농악

풍류문화의 근현대적 부활과 재창조로서의 정음농악

발표-김현선(경기대 교수)

토론-시지은(경기대 박사)

6. \* 정음의 고대문화

한국 고대문화의 한 중심 고부 증방과 돌방무덤

발표-김주성(전주교대 명예교수)

토론-변희섭(정음시립박물관)

7. \* 정음의 공동체문화 1

정음 공동체문화의 근원으로서의 마을굿—원백암, 오류리, 내동, 정량리 등을 중심으로

발표-허정주(전북대 농악/풍물굿연구소 전임연구원)

토론-나경수(전남대 명예교수)

8. \* 정음의 공동체문화 2

한국 공동체 규약의 선봉으로서의 정음향약—고현향약, 태인향약을 중심으로

발표-이해준(공주대 교수)

토론-이춘구(전 전북대 교수)

9. \* 정음의 사상 1

정음 전후, 최치원의 생각 변화와 세상의 변화

발표-안영훈(경희대 교수)

토론-권기성(목포대 교수)

10. \* 정음의 사상 1

선교 융합 사상의 선구자 경한 백운화상의 사상

발표-조영미(성균관대 교수)

토론-이병욱(고려대 교수)

11. \* 정음의 사상 2

한국의 융합적 실질론 철학사상의 중심지 정음—일재 이항의 사상과 그 전개

발표-손홍철(한양대 교수)

토론-최영찬(전북대 교수)

12. \* 정음의 철학 3

한국 도선사상의 중심지 정음—청하 권극종을 중심으로

발표-김성환(군산대 교수)

토론-김방룡(충남대 교수)

13. \* 정음의 사상 4

한국 근현대 민중사상의 중심 정음

—실질론 철학사상 계승과 재창조로서의 증산 강일순 사상

발표-고남식(대진대 교수)

토론-김탁(한중연 박사)

14. \* 정음의 서예

한국 민족-민중 서도의 길을 연 창암 이삼만의 생애와 예술세계

발표-김익두(전북대 교수)

토론-조민환(성균관대 교수)

15. \* 정음의 혁명

세계 5대혁명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현주소와 그 미래지향적 전개 방향

발표-박대길(전북대 박사)

토론-나권수(대진대학교 교수)

16. \* 정음의 민요

한국민요의 한 중심지 정음—「정음사」와 동학혁명노래를 중심으로

발표-조영배(제주대 교수)

토론-나승만(목포대 명예교수)

17. \* 정음의 건축

정음의 건축의 중심적 전개와 고현내 마을 복원 방향

—정음 풍수와 건축, 김동수 가옥, 보천교 십일전, 고현내 원촌 마을 복원을 중심으로

발표-남해경(전북대 교수)

토론-문승현(국민문화유산신탁 연구원 박사)

18. \* 정음의 산업 1

정음의 민족산업과 기업—보천교의 근대 기업 활동과 그 이후,

발표-안후상(노령 역사문화연구원장)

토론-김상욱(목포대 교수)

19. \* 정음의 산업 2

정음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발표-김대혁(전북대 교수)

토론-김철호(전 정음생명공학연구원장, 현 스타트업 대표)

20. 종합토론(사회: 안동대 임재해 교수)

